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총망라

광주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정책 정보를 알차게 제공하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https://youth.gwangju.go.kr)'이 정식 개통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광주시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청년정책플랫폼을 지난해 독립 시스템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으로 새롭게 구축, 3개월 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1일 개통했다.

새로 선보인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청년들이 쉽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 원스톱으로 신청까지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분야 등 다양한 정책을 인공지능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고, 각종 사업 신청, 상담·공간 예약을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는 ▲광주시·자치구 및 전국 청년정책 정보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 ▲우수기업 및 일자리 정보 ▲청년 종합상담 ▲청년 자율공간 ▲역량 강화 학습지원 등을 안내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맞춤형 서비스는 사용자 정보, 플랫폼 내 활동, 관심분야 등을

취창업·이러닝·금융 등 종합상담... 취미·아이디어 공유도

18일까지 SNS홍보 이벤트... '뽕겨요 상품권' 300명 지급

기준으로 특징을 분석해 추천 사업, 연관 콘텐츠, 주변 청년 공간의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종합상담 공간은 취·창업, 교육, 금융 지원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청년정책 관련 건 관련 문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전화·방문·게시판 상담을 운영한다.

여기에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제공하는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일자리 찾기, 강소기업 및 일자리 우수기업 등 정보, 역량강화 학습을 위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일학습 병행과정, 이러닝학습 등이 가능하다.

청년 자율공간은 청년들이 취미를 나누고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공간으로, 현재 공공에서 운영하는 100여 곳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앞으로 민간부문 50여 곳을 추가 지정해 청년들에게 공간정보와 예약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의 이용

자 확대와 인지도 향상을 위해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300명(3만원권 30명, 1만원권 270명)에게 공공배달앱 '뽕겨요' 상품권을 지급하며, 28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주청년통합플랫폼 메인·정책 정보 관련 홍보게시물을 이미지, 해시태그(#광주청년통합플랫폼)와 함께 작성, 플랫폼 이벤트 페이지에서 게시글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광주청년통합플랫폼과 광주시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김기숙 교육청년국장은 "청년통합플랫폼 운영으로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의견을 듣고 플랫폼을 개선해 나가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



과 말했다. 한편 광주청년통합플랫폼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청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을 조성해 청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청년을 위한 통합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박도일 기자



김영록 지사, "개척정신으로 발전 선도하자"

AI·바이오·문화·데이터센터·에너지 분야 결실로 위기극복 강조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일 "국가적 비상과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A부터 F까지다. AI(A), 바이오(B), 문화(C), 데이터센터(D), 에너지(E) 분야 결실을 보기 위해 개척정신(F)을 발휘하자"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정례회의를 통해 "4월은 새 기운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새 질서를 찾아가는 달로, 전남에서 새 희망과 생명을 불어넣어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가 어려울 때 지방이 지평해줄면서, 발전을 선도하고 이끌어가는 노력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신념을 밝힌 것이다. 이를 위해 AI 혁명시대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AI 슈퍼 클러스터 허브 구축 성공을 위해 3년 이내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를 위한 법부처 추진 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염선호 기자

또 화산 바이오·백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한 바이오 분야 성과를 내고, 전통문화와 예술의 고장으로서 전남인의 피 속에 흐르는 '문화DNA'를 발현해 문화예술을 꽃피우는 한편, 2030년까지 2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완성해 도민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달성할 것을 다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개척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자신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인정하고 노력하면 세우질 수 있다는 도전 정신을 발휘해 전남도가 희망을 새롭게 만들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어내자"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나부터 청렴'이라는 실천의지를 갖고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며 "지속적인 반부패·청렴정책을 추진해 조직 전체가 청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염선호 기자

복구, 빈틈없는 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원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이 조성 ▲금융소외계층 포용적 지원 등 3개 분야에 33개 세부 사업 총 36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작년과 비교하여 6개의 세부 사업과 14억의 예산이 늘어났다. 세부 사업에는 소상공인 지원 거점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부터 마케팅 지원,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특히 올해 복구는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과 'AI 기반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하여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특례 보증,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자금 흐름의 안정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사

업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 문인 장정은 "얼어붙은 내수경제로 인해 힘겨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분야별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이 행복한 복구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구는 작년 전국 최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과거가 스마트 빌리지 공모사업 선정, 지역 금융 활성화 유공 특고제 2억 원 확보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성과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다. /송현근 기자

1면에서 이어짐

변론이 막바지로 접어들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검찰 수사 기록이 다수 증거로 채택되는 점을 문제 삼아 '중대 결심'을 언급하며 현재에 날을 세웠다.

그러나 현재는 이전 탄핵심판의 결정 사례를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을 완회해 적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들과 증거조사도 거듭 기각해 변론 일정을 계속 진행했다.

현재는 2월 25일 탄핵심판 최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변론기일은 11차례였고,

변론준비기일까지 합하면 13차례다. 접수일 기준 73일 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49일)보다 길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80일)보다 짧았다.

윤 대통령은 3차 변론부터 최후 변론까지 9차 변론기일 한 차례를 빼고 총 8차례 현재에 출석했다. 9차 변론기일은 구치소를 나왔다가 대리인단과 상의 후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변론 동안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을 정당화하고 정치인 체포 의혹 등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느낌"(5차 변론기일·국회 봉쇄 관련),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인원이라는 말을 써 본 적 없다"(6차 변론기일) 등 발언이

회자됐다.

최후 변론에서 탄핵심판이 기각 또는 각하돼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남은 임기에는 연연하지 않고 남은 시간을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에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변론을 마친 현재는 주말과 휴일을 빼고 매일 평의를 열어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눠 왔다. TF 소속 헌법연구관들도 주말을 반납하고 지원에 나섰다.

당초 전례를 고려해 최후 변론 2주 이내인 3월 11일~14일 사이 선고가 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현재는 예상을 깨고 고심을 거듭했다.

지난달 1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접수 92일째를 맞아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91일)를 넘어 역대 최장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8일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석방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설, '5대 3'으로 엇갈리고 있다는 추측이 나돌았다.

반면 '8대 0'이라는 대세에 지장은 없으나 국론 분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결정문의 세부 내용을 보다 정교하고 치밀하게 다듬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선고기일 지점이 늦어지면서 현재를 향해 "신중이 아닌 지체"라는 법조계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평의가 절충 보안 속에 이뤄지는 가운데 이 이유를 놓고 근거 없는 추측이 나돌면서 혼란이 계속됐다. /뉴시스

서구, "스마트하게 건강 관리하세요"

ICT(정보통신기술) 활용한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모바일 헬스케어'대상자를 모집한다.

스마트 워치 등을 활용하는 '모바일 헬스케어'는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보건소 전문 인력이 대상자 개별 건강 상담과 맞춤형 생활 습관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1960~2004년생 서구 주민 또는 서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150명으로 ▲혈압 130/85mmHg 이상 ▲공복혈당 100mg/

dL 이상 ▲허리둘레 남자 90cm(여자 85cm) 이상 ▲중성지방 150mg/dL 이상 ▲HDL-콜레스테롤 남자 40mg/dL(여자 50mg/dL) 미만 등의 건강 위험 요인 중 3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발되며,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질환자 및 약물 복용자는 제외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62-350-4134)에 문의하면 된다.

서구는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해 스마트 워치를 무료 제공하고 스마트폰 앱과 연동해 11월까지 전문가와의 1:1 맞춤 상담과 활동량, 체성분 분석 등 다양한 자가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박석우 기자

